

'언어의 마술사'와의 힘겨운 싸움

「셰익스피어全集」완역한 申定玉교수



신정옥교수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기존의 번역문이 두드러진 산문투입에 반해, 신교수가 완역한 「셰익스피어 전집」은 시적인 문체와 무대 언어를 그대로 살려 원전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감각과 취향에 맞도록 노력했다고 신교수는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英美희곡을 번역하여 영문학계와 연극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던 申定玉교수(57·명지대 영문과)가 이번엔 셰익스피어(1564~1616)의 전 작품을 완역,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40권의 「셰익스피어全集」(전예원)으로 출간될 이 완역본은 셰익스피어가 전생애에 걸쳐 펴낸 37편의 장막희곡, 2편의 장편시 그리고 소네트를 함께 묶었는데, 최근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오델로」 「베니스의 상인」 「줄리어스 시이저」 등 첫5권이 선보였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1920년대 이후 산발적으로 번역되었고, 1964년에는 휘문출판사(김재남 옮김)와 정음사에서 완역, 전집을 발간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언어습관이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번역문이 두드러진 산문투입에 반해, 신교수의 번역은 셰익스피어의 시적인 문체를 살리고자 했고 무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숙명처럼 혹은 원죄처럼 셰익스피어에 매달렸다는 신교수는 어려운 작업을 끝내고도 오히려 웬지 허전하고 공허하다고 말한다.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완성하고 나서도 몇번이고 고쳐쓰곤 했습니다. 오랜동안의 외로운 번역작업은 문자 그대로 괴롭고 세월에 있지만, 이상한 마력이 저를 붙들곤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람도 느껴지지만 부족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번역엔 '네개의 얼굴' 가져야」

신교수가 셰익스피어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화여대 대학원에 다니던 57년 「한여름밤의

꿈」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셰익스피어에 매료된다.

“그때부터 셰익스피어문학에 어렴풋이나마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지요. 모든 인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던지는 그의 진실성이 저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석사논문도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철학」이란 제목으로 작성했지요.”

그렇게 하여 시작된 셰익스피어에 대한 신교수의 본격적 심취는 견잡을 수 없이 발전한다. 우선 그 결과는 셰익스피어 작품 관련한 편의 번역에 착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의 올바른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신교수는 피부로 느꼈다고 고백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훌륭하게 번역하려면 세개의 얼굴을 가진 그리스 여신 알테미스보다도 한개가 더 많은 얼굴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개의 얼굴이란 비평가적 얼굴, 언어학자적 얼굴, 연출가적 얼굴, 시인적 얼굴 등, 다시 말해 비판의식과 어휘의 풍부함과 무대지식과 시인적 감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조건이 탄탄하게 갖춰졌을 때 그의 본래의 사상과 언어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지요. 저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신교수가 셰익스피어에 매료된 가장 큰 이유는 ‘언어의 천재성’ 때문이었다. 그의 언어가 빛내내는 비극과 희극을 넘나드는 탄력성이 신교수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시적 아름다움과 향기가 심도있는 함축성을 지니고 있으며, 운율과 이미지의 美도 함께 융합돼 있다는 것이 신교수의 지적이다.

“그의 작품 「태풍」(전집 17권)에서의 등장 인물 프로스페로가 바다에서 마술을 부려 폭풍

을 일으키듯이, 셰익스피어는 언어의 마술을 부려 관객이나 독자들의 상상력 속에 태풍을 일으킨 작가입니다.”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神性에 가까운 언어의 천재성이 지금까지의 번역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신교수도 역시 번번이 곤혹스러움을 맛보았으나, 한 작품의 번역을 끝내고 다음 작품에 손을 댈 때마다 “잘못 쓰여진 책은 실수이나 좋은 책의 오역은 죄악”이라는 경구를 되새기며 긴장하곤 했다. 특히 본보기로 삼았던 번역가는 독일의 슐레겔. 그는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시적인 문체와 무대언어를 그대로 살려 독일어로 번역, 독일 희곡과 연극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었다.

“저도 슐레겔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희곡이 옮겨 읽혀질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연극공연하는데 알맞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부분 존 도버 윌슨의 전집을 원전으로 삼았는데, 무분별한 직역과 지나친 의역을 피해서 가능한 한 원전에 충실하도록 노력했죠. 원전과 번역의 거리를 최대한 축소시켜 원전의 의미와 향취를 살리면서도 오늘의 감각과 취향에 맞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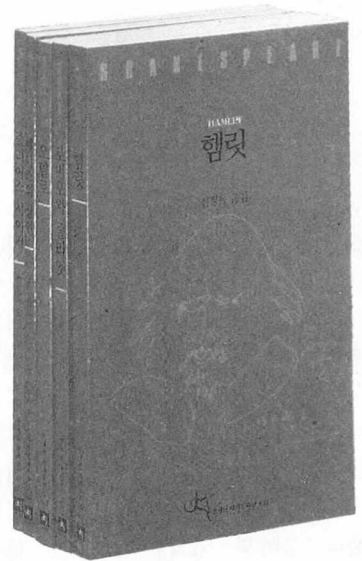
아직도 못다한 '셰익스피어 연구'

한편 신교수는 셰익스피어가 한국연극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셰익스피어문학이 들어오기 시작한 1900년대 초부터 1949년까지를 정리한 연구논문 「셰익스피어의 韓國移植過程에 관한 연구」 제1편과 그후부터 84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제2편이 그것을 잘 증명한다. 65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셰익스피어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06년 「朝陽報」2호를 통해서였지요. 희곡작가나 연극인으로서가 아니라 聖人 또는 사상가로 소개됐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나라’ 등의 구절이 명언으로 소개됐지요. 그러나 그후에는 가장 많이 읽혀지고 연구되는 작가가 된 겁니다.”

1920년대에는 「베니스의 상인」이 번역되는데 그쳤지만, 30년대에는 ‘극예술연구회’가 조직되어 「베니스의 상인」의 재판장면과 「햄릿」이 공연됐다. 50년대에는 그 어려운 시대상황 속에서도 4대 비극이 공연되는 등 셰익스피어문학의 수용은 끊이지 않았다.

신교수는 또 셰익스피어에 대한 우리나라에



서의 수용과정 뿐만 아니라 덴마크와 미국에서의 셰익스피어 수용과정에 관한 논문을 이미 발표했고, 불란서·독일·소련·북유럽 등의 경우도 계속 연구 중에 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20세기의 미국 연극」(앨런 라우너, 문예출판사, 72), 「현대영미희곡전집」(藝潮閣, 75~84) 등의 번역서를 펴낸 바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이 연극계의 주목을 받아 80년에는 한국일보가 제정한 ‘한국영화연극예술상’의 희곡번역부문 특별상을, 85년에는 월간 「한국연극」이 지령100호 기념으로 수여한 ‘최다집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좋은 번역 나오는데 징검다리 됐으면”

셰익스피어가 죽은 후 373년이 흘렀지만 시공을 넘어 아직도 우리들 가슴에 그의 작품이 뜨겁게 자리잡는 것은 역시 신교수 같은 번역가의 힘이 크다고 하겠다. 최근 그는 전집 번역중 20여차례나 손질을 거듭했다는 「햄릿」의 한국에서의 수용과정, 즉 「한국에서의 햄릿 수용사」를 책으로 펴내기 위해 30여년간이나 계속해온 셰익스피어 연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작품마다 해설을 곁들인 셰익스피어 전집이 출판사측의 말대로 5권씩 차례로 발간, 내년쯤 완간되면 셰익스피어 연구자들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독서와 연극 감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셰익스피어전집 완역이 한국출판문화, 나아가 정신문화를 운택하게 하는 한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번역이 나오는데 저의 역사가 일종의 징검다리가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 차창용 기자